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## 뉴욕생명, 중국시장에서 완전 철수 전망

- 합자생보회사인 하이얼뉴욕생명(海尔纽约人寿)의 대주주인 미국 뉴욕생명이 조만간 중국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주목됨.
  - 하이얼뉴욕생명은 최근 미국측 대주주인 뉴욕생명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알려짐.
  - 광따용밍생명(光大永明人寿), 헝안스텐다드생명(恒安标准人寿), 루이타이생명(瑞泰人寿), 중미메트로생명(中美大都會人壽) 등의 합자계들이 지분 변동에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하거나 다른 외자사를 끌어들이는 일은 종종 있어왔으나, 이번 하이얼뉴욕생명과 같이 지분 전량 매각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음.
  - 또한 작년부턴 뉴욕생명에서 파견하기로 되어 있는 최고경영자(CEO) 자리가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는 점도 뉴욕생명이 중국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추측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음.
- 뉴욕생명의 철수 배경에는 향후 이익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뉴욕생명의 독단적인 경영방식에 불만을 가진 중국측 하이얼그룹의 독자 노선 결정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.
  - 160여 년 역사의 미국 뉴욕생명과 대표적인 중국 가전업체인 하이얼그룹이 2002년 11월 각각 50%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하이얼뉴욕생명은 지지부진한 실적(2009년 수입보험료 기준 28개 합자사들 중 19위(시장점유율 1.1%))으로 이렇다 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.
  - 또한 2007년 그나마 선전하던 방카슈랑스 채널을 축소하고 보험대리인(보험설계사)들을 무리하게 확충하는 등 하이얼그룹은 뉴욕생명의 독단적인 회사경영에 불만을 품고 최근 독자 노선을 걸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.
  - 회사설립 후 손익분기점이 되는 시기가 약 7년 정도인 점과 향후 이익 발생 시점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하이얼뉴욕생명의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뉴욕생명과 하이얼그룹의 결별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.

(중국경영보, 3/28)